

지역 중견 화가들, 교육기관·기업 달력 제작 적극 참여

“예술’ 걸어 두고 보세요”

매달 새로운 미술작품을 거실 벽에 걸 수는 없을까?

최근 이 지역 중견 화가들의 작품이 담긴 2008년 무자년(戊子年) 달력이 붙을 이루고 있다. 서양화가 황영성, 유수종씨의 경우 대기업으로부터 제작료를 받고 달력을 제작했다가 하면 서양화가 최영훈씨와 한국화가 오견규씨는 유지원과 송광사의 달력제작에 참여했다.

그림 달력은 별다른 리모델링 없이 매달 한 장씩 넘길 때마다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일부 작가의 달력은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구하기 힘들 정도다.

“가족 이야기” 시리즈로 잘 알려진 황영성씨는 대우조선의 신년 달력 제작에 참여했다. 그는 “작은 가족이야기” ‘소와 가족’ ‘큰 나무와 마을’ 등 80년대에 그린 12점을 벽걸이·책상용 2종의 달력에 담았다.

부부 전시회를 통해 예술사상을 보여주고 있는 최영훈(조선대 교수·순연자(조각가)씨 부부도 유지원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광주시 서구 풍양동 세운그림유치원 달력에 그림을 내놓았다.

강렬한 원색의 조화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최씨의 ‘오월항기’ ‘봄날의 꿈’ ‘장미’ 등 작품과 아내 손씨의 ‘나의 얼굴’ ‘외출’ ‘지하철 가는 길’의 조각 작품이 수록됐다.

유수종씨도 레저건설업체인 르·메이에르 신년 달력에 그림을 넣었다. 올해로 15년째 ‘르·메이에르’ 달력에 참여하고 있는 유씨는 전시회 뿐 만 아니라 달력을 통해 전국적인 인



황영성·유수종·허달재씨 등 지역 중견 화가들의 작품이 수록된 2008년 달력. 그림 달력은 거실에 거는 것 만으로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에 배포...사계절 작품 홍보효과 ‘특목’

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이번 신년 달력에는 ‘안식’ ‘달과 해오라비’ ‘장미’ 등 그의 담백한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담겨 있다.

의재미술관 관장인 한국화가 허달재씨도 ADT캡스의 달력에 찾잔을 소재로 한 목화 12점을 실었다. 빠르고 다양한 것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동일한 사물도 달력을 통해 각기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 찾잔을 소재로 작품을 그렸다.

한국화가 목은 오견규씨도 담백한 목화로

그린 순천 송광사의 사계를 달력에 수록했다. 작가들이 이처럼 달력제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수종씨는 “달력은 전국에 배포되고, 1년 내내 일반인들에게 선보인다는 점에서 작가에게는 작품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면서 “해마다 내 작품이 실린 새 달력을 보면서 창작열을 불태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기업들도 ‘名畫 마케팅’

신세계백화점·부국철강 등 유명작가 작품 달력 제작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유명 화가들의 작품으로 꾸민 달력을 나눠주는 ‘명화(名畫)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만화를 미술에 응용한 팝아트 거장 로이 리히텐슈타인(Roy Lichtenstein)의 작품을 모아 ‘명화 달력’을 만들었다. 이 달력에는 지난달 삼성 비자금 스캔들로 화제를 모은 ‘행복의 눈물’이 빠져지만 ‘차 안에서’와 ‘알로하’ ‘텔리비브 벽화’ 등의 작품이 수록돼 있다. 광주에서만 7천부 배포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독일 표현주의 화가 아우구스트 마케(August Macke)의 작품으로

꾸민 신년 달력 제작해 나눠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7만부가 만들어졌다. 광주은행도 제주 출신 서양화가 강요제씨의 작품으로 VIP 고객전용 달력 1천부를 제작했다.

부국철강은 제주 출신 사진작가 박훈일씨의 카메라 앵글에 포착된 여미지 식물원의 아름다움을 책상용 달력에 고스란히 담아 배포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예년 보다 발행부수를 줄였지만 세계적인 작품을 달력에 넣는 등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작고한 해외 유명



로이 리히텐슈타인 작 ‘차 안에서’

작가의 경우 저작권료 등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제작비가 1부당 5만~10만원이 넘는다”면서 “외국 유명 작가의 그림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가 홍보되기 때문에 명화 달력 제작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다정히...”

‘전남 관광 스토리텔링 공모’ 일반부·대학부 금상에 김성범·조인정씨

“소쇄원에 들어서면 바로 보이는 초가 정자가 대봉대라는 곳이야. 대봉대는 봉황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뜻이지. 대봉대를 초가집으로 지은 이유는 주인 양산보가 자기의 부족함과 겸손함을 나타낸 것이고, 봉황을 기다린다는 것은 봉황처럼 소중한 손님을 기다려 맞는다라는 다정한 뜻이 담긴 곳이야. 이 소쇄원의 주인은 여기서 손님을 맞는 거지...”



〈김성범씨〉

가 대학부 금상을, 김성범(45·곡성군)씨가 일반부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조씨는 ‘담양 소쇄원과 메타세쿼이아 길’이라는 작품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듯 소쇄원을 설명했다.

김씨는 역사 속의 인물인 마천목 장군과 얽힌 도깨비 전설을 토대로한

‘도깨비 살’로 심진강 기차마을과 자연학습장을 이야기했다.

지역에서 동화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범 씨는 “수려한 경관과 역사 속 인물이 조화를 이뤄 또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도깨비 살’이 동화책, 동요, 인형극, 애니메이션으로 까지 활용돼 곡성의 소득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스토리텔링이란 기존의 정보들을 활용해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박제된 역사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효과 때문에 최근 관광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동심이 미술관에 주렁주렁

담양 명지미술관 내년 1월 10일까지 ‘학교 연계 미술교육 체험전’

초등생 30여명 작품 전시

아이들의 동심이 미술관에 내걸렸다.

담양군 고서·만덕·창평초등학교 학생 30여명이 내년 1월10일까지 담양군 고서면 고등면 명지미술관에서 ‘학교연계 미술교육 체험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매주 토요일) 명지미술관에서 미술교육을 받았다.

출품된 작품들은 직접 도화지에 밑그림을 그린 뒤 색종이 등을 오



담양군 고서·만덕·창평초등학교 학생들이 명지미술관에서 수채화 그리기 교육을 받고 있다.

〈명지미술관 제공〉

려 붙여 만든 콜라주(collage) 작품과 수채화 등이다. 문의 062-383-

257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함께해요 동아리 한마당 축제

28일 광주일곡도서관...실버연극단 ‘갯손애’ 등 공연

광주일곡도서관(관장 안미영)이 28일 오후 7시30분 도서관 1층 공연장에서 2007년을 총결산하는 ‘함께해요! 제6회 동아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한다.

주인 스스로 동아리를 구성해 1년 동안 활동한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

리인 이번 한마당 축제에서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평균 연령 73세 노인들로 구성된 실버연극단의 창작극 ‘갯손애’.

난생 처음 연극을 접한 노인들이 2개월간의 연습과정을 거쳐 선보이는 ‘갯손애’는 우리말 ‘가시

내’의 유래를 재미있게 구성한 작품으로 노인들이 직접 지도교사와 대사를 쓰는 등 함께 만들어간 작품이다.

또 클래식기타반의 독주 ‘섬집아기’와 2중주 ‘에스파니아 카니’, 팝송반의 합창 ‘Come On Over’, ‘Sealed With A Kiss’, 바이올린반의 독주, 일곡시회의 시낭송, 어린이·어른극원 동화반의 구연동화 등이 선보인다. 문의 062-575-34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 www.megabox.co.kr</p> <p>구.런던역사거리 ☞에메1544-0600</p> <p>1관 내 사랑 (12세) 최고급관 2관 황금나침반 (전세) 3관 험필과 그레델 (12세) 4관 색즉시공2 (18세) / 용의주도 미스신 (15세) 5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6관 내셔널트레저-비밀의책 (12세) 7관 가면 (18세) 8관 마고리엄의장난감백화점 (전세) 9관 아메리칸 갱스터 (18세)</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우로잡은 뷔페-티켓만 있으면 잡은이 무료</p>	<p>엔터 시네마 www.entercinema.co.kr</p> <p>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황금나침반 (전세) 2관 용의주도 미스신 (15세) 3관 마고리엄의장난감백화점 (전세) 4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 내사랑 (12세) 5관 엘빈과슈퍼밴드 (전세) / 내셔널트레저 (12세) 6관 색즉시공2 (18세) 7관 아메리칸 갱스터 (18세)</p> <p>* 넓고 편한 워너-옥외 주차장 300대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www.joycoco.com / 1588-7941</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우석병원 뒷편)</p> <p>1관 마고리엄의장난감백화점 (12세) / 가면 (18세) 2관 내사랑 (12세) / 험필과그레델 (12세) 3관 엘빈과슈퍼밴드 (전세) / 내셔널트레저 (12세) 4관 내셔널트레저: 비밀의책 (12세) 5관 용의주도 미스신 (15세) 6관 아메리칸 갱스터 (18세) 7관 황금 나침반 (전세) 8관 색즉시공2 (18세) 9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10관 황금나침반 (전세)</p> <p>* 호남 최대 주차장 * 메입심이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상무점 (10:00) 잠깐의 상영중 상영연결 방법 (11:00~12:00) → 1년</p>	<p>씨너스 전대 www.cinusa.co.kr / 1544-0070</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험필과 그레델 (12세) 2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3관 아메리칸 갱스터 (18세) 4관 엘빈슈퍼밴드-대방(전세) / 내셔널트레저 (12세) 5관 마고리엄의장난감백화점(전세) / 용의주도미스신 (15세) 6관 황금 나침반 (전세) 7관 색즉시공2 (18세) / 내사랑 (12세)</p> <p>*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세너스녹화 사무시(모텔사-배재사) ARS 전화예매 1544-0070</p>	<p>무등극장 www.mo12.co.kr / 1588-9101</p> <p>총장로 1가 ☞ 232-9106</p> <p>1관 용의주도 미스신 (15세) 2관 아메리칸 갱스터 (18세) 3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4관 색즉시공2 (18세) 5관 내셔널트레저 (12세) 6관 가면 (18세) 7관 험필과그레델 (12세) / 아거스트리쉬 (전세) 8관 내사랑 (12세) 9관 황금나침반 (전세)</p> <p>*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암) 3시간 무료주차 * 메입심야 상영을 위한 전용구역 마련 * 인터넷 예매 문의 * 전화예매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1588-9101</p>	<p>제일시네마 www.primuscinema.com/www.jeilsinema.co.kr</p> <p>총장로 3가 ☞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내사랑 (12세) 2관 황금나침반 (전세) 3관 가면 (18세) 4관 색즉시공2 (18세) 5관 나는 전설이다 (12세) 6관 내셔널 트레저 (12세)</p> <p>* 티켓만 있으면 잡은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